

韓國의 飲酒禮法에 관한 考察

徐 燾 永

東洋麥酒(株)

(1986년 3월 10일 접수)

Studies on Drinking Manner in Korea

Don Young Suh

Oriental Brewery Co., Ltd.

(Received March 10, 1986)

Abstract

The drinking manners of the modern generation were review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First, for reasons of health, we should reject the drinking from the same cup as others in reciprocation.

Second, if the other people are older or younger brothers above the same level, pouring with one hand is all right, but if 5 years older or more, or stranger, grasp the bottle in two hands in the following manner. With the right hand under the bottle, and the left hand supporting its side, carefully pour wine not to show the palm of the hand.

Third, ladies, also, can drink freely at the same table, but if people of the opposite sex are sitting together, they should pour with two hands to convey the meaning of courteous treatment.

Fourth, because the level of our living is not too high, we must not order more than we can use, so that when we are finished, there will be no remainder.

1. 序 論

술을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마시는가의 수법 차이로 세가지의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가 제 술잔에 제가 손수 따라 마시는 獨酌 문화권이다. 주로 歐美사람들이 독작을 한다. 둘째가 서로 술을 따라 놓고 같이 마시고 건배를 하는 對酌 문화권이다. 대작에는 마시기 전에 건배하는 飲前對酌과 마신후에 건배하는 飲後對酌이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음전대작을 하고, 중국사람들이 주로 음후대작을 한다. 셋째가 마시는 사람끼리 술

잔을 주고 받거나 술잔을 돌려 마시는 酬酌 문화권이다.

세상사람들은 세가지 문화권의 어느 한 문화권에 속할 수 있으며 한국사람들은 수작문화의 배경때문에 타의에 의해 음주 스피드가 높다.

술은 긴장된 사회생활의 연속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로와 휴양을 주는 윤택유 노릇을 하지만 패가망신의 원흉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므로 술을 어떻게 마시며 소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飲酒禮法을 論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酒”字의 起源^{2,3}

酒字는 삼水(江)변이다. 보통 삼水(江) 변의 글자는 옥편에서 찾을 때 水之部를 보게 되지만 酒字는 水之部에 속하지 않고 酉之部에 들어있다. 酉는 地支유, 익을 유로 訓이 되는데 원래 술항아리를 象形한 것으로 술을 뜻하는 것이었다. 물수(江)와 술을 뜻하는 술항아리가 합쳐 술주(酒)가 된것은 술항아리 안의 익은 곡주를 막걸리처럼 물을 첨가하여 걸름으로써 유래한 글자로 추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날 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글자가 운데서도 酉字가 들어 있으면 애초에 술과 관련되었던 글자가 많이 있다. 술을 뜻하는 酉가 변으로 들어간 모든 漢字는 醱酵에 관한 광범위한 食品名 및 현상호칭에까지 뜻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좋은 뜻이나 좋지 않은 뜻을 지닌 추상으로까지 번져 있다.

酒類名으로는 酎(세 번 빛은 술주), 醪(막걸리요), (막걸리 양)이고 술을 빚을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글자로는 釀(술 필 밭), 酵(술 필 효), 釀(술 빚을 양)이 있고 추상어로는 醉(술 취할 취), 醜(술 취할 명), 酩(술 취할 정), 酬(잔 돌릴 수, 갚을 수), 酌(잔 질할 작)이 있다.

친구들이 술을 먹기 위해 추렴하는데서 釀(술 추렴할 작)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기부금 거두는 것을 각출(釀出)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술을 과음하면 酒酩을 하게 되어 醜(더러울 추)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3. 飲酒禮法⁴

술은 다른 음식과 달리 예로부터 먹는데 있어 언제나 규범이 있었다. 이를 통칭해서 酒道라 일컫고 있다. 이는 술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씨이며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예의범절이다.

書道, 茶道, 酒道 등은 일본식 표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書藝, 茶法, 酒法이라고 쓰는 표현이 옳다고 하나 음주예법으로 酒道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名士들의 의견과 古典의 酒道論을 살펴본다.

1) 趙之薰의 “酒道有段”

“술을 마시면 누구나 다 氣高萬丈하여 英雄豪傑

이 되고 偉人賢士도 안중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주장만 하면 다 주장이 되는 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정을 보고 그 사람의 人品과 직업은 물론 그 사람의 酒歷과 酒力을 당장 알아 낼 수 있다.

주정도 교양이다. 많이 안다고 해서 다 교양이 높은 것이 아니듯이 많이 마시고 많이 떠드는 것만으로 酒格은 높아지지 않는다. 酒道에는 엄연히 段이 있다는 말이다.

첫째, 술을 마신 연분이 문제요, 둘째,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문제요, 세째는 마신 기회가 문제며, 네째 술을 마신 동기, 다섯째 술 버릇,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 段의 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飲酒에는 무릇 十八의 階段이 있다.

- ① 不酒...술을 아주 못 먹진 않으나 안먹는 사람
- ② 畏酒...술을 마시긴 마시나 술을 겁내는 사람
- ③ 憫酒...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으나 취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
- ④ 隱酒...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고 취할 줄도 알지만 돈이 아쉬워서 혼자 숨어 마시는 사람
- ⑤ 商酒...마실 줄도 알고 좋아도 하면서 무슨利害이 있을 때만 술을 내는 사람
- ⑥ 色酒...性生活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
- ⑦ 睡酒...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
- ⑧ 飯酒...밥맛을 돕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
- ⑨ 學酒...술의 眞境을 배우는 사람(酒卒)
- ⑩ 愛酒...술의 취미를 맛보는 사람(酒徒)
- ⑪ 嗜酒...술의 진미에 반한 사람(酒客)
- ⑫ 耽酒...술의 眞境을 체득한 사람(酒豪)
- ⑬ 蕩酒...酒道를 수련하는 사람(酒狂)
- ⑭ 長酒...酒道 三昧에 든 사람(酒仙)
- ⑮ 惜酒...술을 아끼고 인정을 아끼는 사람(酒賢)
- ⑯ 樂酒...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술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사람(酒聖)
- ⑰ 觀酒...술을 보고 즐거워하되 이미 마실 수는 없는 사람(酒宗)
- ⑱ 廢酒...淫樂酒...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

不酒·畏酒·憫酒·隱酒는 술의 眞境, 眞味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商酒·色酒·睡酒·飯酒는 목적을 위하여 마시는 술이니 술의 眞諦를 모르는 사람

2) 李春寧: 「酉字論」, 酒精工業(大韓酒精協會, 76 9월호) 92~93면

3) 李盛雨: 韓國食品社會史, 敎文社, 181면(1984)

4) 新韓國文學全集 44卷(語文閣 83, 10, 20) 455~456면

들이다.

學酒의 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酒道 初級을 주고 酒卒이란 칭호를 줄 수 있다. 飯酒는 二級이요, 차례로 내려가서 不酒가 九級이니 그 以下는 斥酒 反酒 黨들이다.

愛酒·嗜酒·耽酒·慕酒는 술의 眞味, 眞境을 悟達한 사람이요, 長酒·惜酒·樂酒·觀酒는 술의 진미를 체득하고 다시 한 번 넘어서 任運自適하는 사람들이다. 愛酒의 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酒道의 初段을 주고 酒徒란 칭호를 줄 수 있다. 嗜酒가 二段이요, 차례로 올라가서 浬繁酒가 九段으로 名人級이다.

그 以上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니 段을 딸 수 없다. ……以下 略……

술 이야기를 써서 생기는 稿料는 술 마시기 위한 酒銜을 삼는 것이 제 格이다. 글 쓰기 보다는 술 마시는 것이 훨씬 쉽고 글 쓰는 재미보다도 술 마시는 재미가 더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글이고 무엇이고 万事休矣이다.

술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憑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술꾼이란 萬事에 악착같이 달라붙지 않고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모든일에 야무지지 못하다.

飲酒有段! 高段도 많지만 學酒의 境이 最高境地라고 보는 나의 拙見은 내가 아직 世俗의 忘念을 다 씻어 버리지 못한 탓이다. 酒道의 正見에서 보면 功利論的 傾向이라 하리라.

天下의 好者 諸氏의 意見은 若何오.

2) 조풍연의 “술에 길이 있다.”⁵⁾

조풍연씨는 술 먹는 이의 금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① 술은 즐겁게 먹는 것, 무슨 까닭이 붙은(말하자면 향응에 속하는)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 ② 술 먹고 주정하려거든 술을 입에 대지 말라
- ③ 주량에 꼭 찬 사람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은 일종의 벌주(부도덕 행위)
- ④ 상사에게 올분을 말할때 음주 상태에서 하는 것은 술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

⑤ 자기 체질에 맞는 술을 마시라. 값이 비싼 술이 반드시 좋은 술은 아니다.

⑥ 술 취해서 너무 떠들어 수위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질서문란이다.

3) 林語堂의 “生活의 發見”⁶⁾

여기에 酒論, 酒令에서 酒法을 論한 대목이 있다. “공식석상에서 마시는 술은 조용히 한가하게 마실 것.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술은 품위를 갖추면서도 통쾌하게 마실 것. 병자의 술은 소량이라도 하며 마음이 슬픈 사람은 취하기 위하여 마실 것. 봄술은 뜰 앞에서, 여름술은 들에서, 가을술은 조각배 위에서, 겨울술은 집안에서 마실 것” 이라고 하였다.

4) 孔子의 언행을 기록한 論語에서⁷⁾

“술만은 일정한 量이 없었으나 난잡해 지시기에 까지는 아니 하셨다. 「唯酒無量不及亂」 하였고 “鄉里的 사람들과 술을 드실 때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가면 그제서야 나가셨다. 「鄉人飲酒杖者出斯出矣」 하셨다.

이덕무의 士小節에는 “남에게 술을 굳이 권하지 말 것이며 어른이 나에게 굳이 권할 때는 아무리 사양해도 안되거든 입술만 적시는 것이 좋다” 하였다.

小學에서는 “어른을 모시고 술 마실때 술이 나오면 일어나 술 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절하고 받아야 한다. 어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리면 젊은이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마시되 어른이 술을 아직 다 마시지 않았으면 젊은이는 감히 마시지 못한다.” 하였다.

또 예전에는 술과 담배는 어른 앞에서 먹지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술만은 어른이 허락해 줄 때면 마실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었다. 이때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듯이 얼굴을 좌측으로 돌려서 마셔야 했다.

또 술을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었다. 常民들의 경우 지위가 없으므로 나이가 많은 사회에서는 벼슬 높은 사람이 먼저 마시는 것이 예법으로 돼 있었다.⁸⁾

5) 趙豐衍, 「술에 길이 있다」, 酒類工業協會, 83, 9面 9월호)

6) 林語堂 著, 金秉喆 譯, 生活의 發見 乙酉文化社, 116面, 1984

7) 車柱環 譯, 論語 乙酉文化社, 131~132面 1983.

8) 이덕무 생활의 예절, 민족문화문고간행회, 35面, 1982

9) 李基典 譯解, 新譯 小學, 弘新文化社 85面, 1982

10) 李端求 趙豐衍 對談, 「風流百年」(日刊스포츠 77, 1, 28)

11) 배도식, 「옛 주막의 民俗의 考察」, 韓國民俗學 15輯, 100面, 1982

그리고 옛 주막에서의 거래는 현금으로도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외상거래도 하는데 벽이나 기둥, 엄대라는 막대기에 금을 그어 표시를 해두었다가 계산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할 때는 흔히들 “그어두라”는 말을 한다.¹²⁾

팁이란 말은 18세기 영국의 다방에서 차배 달의 신속을 위한 급행료로서 To insure promptness의 머릿글자가 모여진 것인데, 옛날에도 팁이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꼭 팁을 지불해야 되거나 달라고 손내미는 酒母도, 接待婦도 없었다. 다만 손님 의 기분에 따라 엽전이 있으면 두어 닢 집어 주었다. 그러나 그 시절엔 통화량이 넉넉치 못하여 피나리 북짐에서 쌀이나 한 뒷박 떠 주거나, 무명이 나 몇자 끊어주면 후한 팁이었다고 한다.¹³⁾

5) 鄉飲酒禮¹⁴⁾

향음주례는 六禮(冠禮, 婚禮, 喪禮, 祭禮, 相見禮, 鄉飲酒禮)의 하나로 四書五經의 하나인 漢書 “禮記”¹⁵⁾에 따른 옛 선비들의 음주예절로써 한말까지 향교나 서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과목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옛 선인들에게 술이란 천지귀신에게 제사지낼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숭고한 음식이었다. 높고 병든 이의 혈기를 돌우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약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술을 한갓 환락의 도구나 客氣의 근본으로 誤用하여 질런히 마시고 狂態를 자행한 끝에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성현들이 이를 막기위해 향음주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인은 술잔 하나로 술을 돌려가며 손님에게 권해야 되는데 이는 酒席總和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

또 자기가 술을 마시지 않고 상대편에게만 권하는 것은 큰 실례로 여겼다. 왜냐하면 취하는 술을 자기는 마시지 않고 상대편에게만 일방적으로 권하는 것은 罰酒를 주는 것과 똑 같기 때문이다.

이 향음주례는 일제의 침략을 받은 뒤에는 의병

모의를 하는 모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日帝는 우국지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 의식을 이용하는 것을 적발, 그 후 이 의식거행을 금지해버렸다.

그 후 74년 만인 1979년 11월 10일 성균관 대학교 明倫堂 앞뜰에서 韓國青年儒道會(당시 회장:徐正洪)에 의해 3시간이나 소요되며 再現 되었는데 ①주인이 손님을 청함 ②손님을 모셔 옴 ③손님을 맞이함 ④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대접함 ⑤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권함 ⑥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함 ⑦주인이 여러 손님에게 술을 대접함 ⑧酒席의 사회자를 세움 ⑨차례로 술을 권함 ⑩두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술을 권함 ⑪축제음식을 거둠 ⑫연회를 함 ⑬손님이 돌아감에 이르기까지 13단계에 걸쳐 거행되었다.

세삼 儒風에 향수를 갖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日常 중에도 法도와 節制를 잃지 않는 것은 결코 마다할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향음주례의 전통으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우리의 음주예법을 서정기씨의 정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¹⁶⁾ 술과 음식을 너무 질런하게 하지 아니하며 안주는 자기의 접시에서 덜어다가 먹었던 것이며 술잔은 돌리되 반드시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채워다가 권하여 존경심과 친밀감이 전달되도록 한다.

술 좌석에서 잔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巡杯라고 하는데 술이란 대개 석잔은 혼혼하고 다섯잔은 기분 좋고 일곱잔은 흡족하고 아홉잔은 지나치므로 일곱잔 이상은 절대로 권하여 돌리지 아니 하였다.

예절이란 가면 오고 또한 주면 받는 것이므로 술을 대접받았을 때 뒤에 다시 갚아야 하지만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그 두터운 뜻을 길이 간직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끔 즉시에 즉흥적으로 갚아버리기 위하여 2차니 3차니 하면서 물려 다니지만 오히려 경박한 세태의 풍조라고 하겠다.

6) 술잔 돌리기

우리 조상들이 음주예절은 두 가지가 있다. 鄉飲酒禮와 會飲이다. 고려 仁宗때에 鄉飲酒禮를 행하

12) 李端球, 歲時記, 培英社, 113面, 1973

13) 姜大衡 記者, 「술잔에도 禮節받았던 옛 酒道」(한국일보, 79. 11. 13)

14) 李相玉 譯著, 禮記(下) 明文堂, 243~261面, 1985

15) 徐正洪, 「세계의 酒道의 韓國」(斗山 社外報 84. 2월호) 26~27面

16) 韓國民俗大觀 第二卷, 日常生活/依責任(高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 出版部, 80. 10. 15) 90~91面

도록 규정을 지은 바 있고, 李朝 成宗때에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향음주례에서도 잔주고 받기가 있었고 會飲의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경주 모석정에는 曲水を 흐르게 하여 술잔을 돌려 마신 신라의 유적이 있는데 퇴폐적인 왕실의 향락의 방편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임금이 그가 거느린 신하들과 더불어 共同體意識을 결속하는 일종의 정신적 제약행위로써 복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李朝때 承文院에서 임금에게 문서를 올리는 날에는 임금께서 주식을 내리게 마련이었는데 그들은 高靈鍾이라는 큰 술잔에 담아 돌려가며 마셨다. 한다.

이러한 관습에 의해 요즈음도 가끔 대포잔을 돌리며 결속을 다지는 음주행위가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고 술이란 강제로 권하는게 아니었으며 勸酒는 특별한 경우 기생이 권주가를 부르며 권하는 때라면 술을 받았지만 무작정 마주앉아 술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日本式이었다. 술을 마시는데 韓國과 日本의 예법은 조금씩 달랐다.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것을 獻酒라고 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웃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술잔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日本人연회석엔 가면 아랫 사람들이 웃 사람을 찾아가 술을 간청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한다.

그런데 요즘 觀光이다. 商談이다. 하여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초대 받는 자리에서 한국사람이 먼저 술을 권하면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낮게 보는게 아닌가 하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⁷⁾

이런 풍습은 대부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일본의 잔 주고 받기(獻酌=젠샤쿠)라는 것은 원래 下向 즉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특히 내리는 술을 받아 마신 다음에 다시 술잔을 올리는 잔 돌리기이다.

물론 같은 또래끼리도 주고 받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잔 씻기(盃洗=하이센)라는게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잔을 물에 씻고 돌리게 돼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웃 사람에게 다투어 잔을 올리고 웃 사람은 잔을 안올리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수도 있다.

일본도 이제는 잔 주고 받기가 일부 보수적인 지방관서나 소위 야꾸자(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만 겨우 남아 있는 이 주법이 우리땅에 아직도 전재하다는 것은 향음주례에서 온 관습과 일본식 관습의 혼합이 아닌가 생각된다.

7) 기타 禮法

술을 다룰때의 예의에 대해서도 서로 平交할 수 있는 나이차가 5살 미만의 처지에는 한 손이 무방하지만 敬語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두 손으로 따르고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도포 등 소매자락이 긴 한복에서는 겨드랑이를 끌어 올리 듯 하고 양복을 입었을 때는 술병을 받쳐 드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술병 잡은 오른손의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따르는 것과 왼손으로 따르는 것은 주기 싫은 술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므로 무관한 처지가 아니면 술좌석에서 상대방의 기분울 언짢게 만드는 행위는 삼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女性이 酒席에 걸 때의 경우 술을 둘러서 여러가지 금기는 일부의 양반사회였고 서민층들은 옛날에도 대체로 자유롭게 마셨다. 술이 많지 않아 잔치때나 마셨지만 마시는 이상은 흥겨움게 잔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酒席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여성이 술을 따라 주고 안 따라 주고는 아무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오직 분위기가 중요하다 하겠다.

술을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은 서양에는 없는 한국의 예절로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이가 엇비슷하거나 연하라도 상대가 異性이면 공경해 주는것이 예의이며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술자리가 끝나고 일어설 때에 있어서도 분명히 돈을 주고 치른 술인데도 식탁 밑에 퇴주잔이 가득하게 차 있는가하면 반병씩 채워진 몇병의 술과 잔에 담겨져 먹지도 않고 버려진 술을 볼수 있는데 말끔히 마신 후에 좌석을 끝내야 할 것이며 윗 사람이 자리를 뜨면 모두 따라 일어나야 할 것이다.

17) 李圭泰 著, 續 韓國人の 意識構造 上 (신원문화사, 83. 6. 30) 133~134面

18) 李端求, 趙農術 對談, 「風流百年」(日刊스포츠, 77. 2. 18)

19) 金定漢, 「食卓有感」 「食品과 衛生」, 83面, 1985(창간호)

20) 新·禮記, 「술을 다룰때」(한국일보 83. 7. 13)

21) 新·禮記, 「女性이 酒席에 걸때」(한국일보 84. 8. 29)

22) 독자논란: 미풍양속의 酒道, 전전한 질서 아쉽다. (정연채: 경기도 가평군하면 조선일보, 83. 6. 22)

4. 매스컴의 飲酒習慣에 대한 批判

80년대의 최근 5 년간에 걸쳐 술버릇, 알콜중독, 금주운동 등 음주형태에 대한 매스컴의 비판내용은 6 단 이상의 기사로 신문에서 20건, 잡지에서 4 건, 방송에서 3 건 이상으로 보도되었다. 몇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 ① 이런건 고치자, 술버릇: 어거지 酒道에 마시면 곤드레, 무리하게 권하고 마시지 않으면 曲解, 걸핏하면 喧聲 높히고 주먹다짐까지, 2 차 3 차 거듭하며 취해야 직성플려(朴世 기자, 조선일보 81, 2, 27. 6 단 기사)
- ② 생활 속에 日帝잔재(歪曲계기로 본 털어내야 할 먼지들): 意識不在의 대중오락, 상두드리는 酒興은 그들이 남긴 버릇(李龍兩기자, 동아일보 82. 10. 5. 6 단 기사)
- ③ 술잔 強勸습관 고쳐야 한다: 잔 안돌리기 슬그머니 꼬리 감춰, 곤드레 만드레 마시는 것 큰 문제(論外論, 李限諱는설위원, 중앙일보 85. 3. 21. 6 단 기사)
- ④ 추적 60분 「술」: 중국 음식점 주방장 술 마시기 시함으로 소주 4 병 반 마시고 사망한 내용 및 알콜의 血中濃度와 死亡에 관한 동물 실험 소개(KBS II 84. 12. 30. 45분 방영)
- ⑤ 술을 권하지 않는 것도 미덕이 되어야: 권하는 술은 사양하지 않고 거뜬히 받아 마셔야 남자다운 것이고 자신이 마시는 만큼 남에게도 권해야만 예의라는 것은 나로써는 남득이 잘 가지않는 일이다. (프랭크 더피<코리아 해럴드 뉴스 편집자>, 2000年 85. 6 월호 24-25面)

5. 時代에 맞는 飲酒禮法의 必要性

술 마시는 예절에 아무리 좋은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가 封建社會에서 市民社會로 바뀌었으니 時代에 맞는 飲酒禮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술잔을 돌릴경우 肝炎, 바이러스, 결핵

균 등 신중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문식단체의 운영도 환자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덜어 먹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술꾼들이 술잔 돌리기가 과음의 원인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잔 돌리기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서로의 권주는 미덕이니 잔을 돌리고 싶다면 별도로 돌리는 잔을 두어 작을 받아 자기 잔에 부어 마시는 방법도 있겠다.

우리 조상들이 즐기던 巡杯에도 과음을 피하기 위한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고 더구나 가치관이 다르고 한국풍속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에게 술잔 돌리는 습관을 강요할 필요는 더욱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마이카가 40만대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술의 自制야말로 무엇보다 時急하다 하겠다.

斗酒不辭를 패남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過飲을 피하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주예법으로서의 酒法은 어느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酒黨들이 가꾸어야 할 課題인 것이다

6. 結 論

時代에 맞는 권장하고 싶은 飲酒禮法을 要約하자면

첫째 술잔 돌리기를 피하는 위생적인 酒法을 가져야겠고, 둘째 呼兄 呼弟하는 平交에서는 한손으로 술을 따라도 괜찮으나 5세 이상의 연장자나 초면에는 두 손으로 따르며 병을 잡은 오른손의 바닥이 위로 향하지 않게 한다. 셋째 여성들도 자유롭게 酒席에서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상대가 異性이면 공경해 주는 뜻으로 두손으로 술을 따른다. 넷째 경제적으로 잘 살지도 못하는 우리 처지인 만큼 술을 마실 만큼 주문하여 좌석이 끝날 때 술과 음식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